



본 공연은 여러 물체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가까이서 보여줍니다. 다양한 색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종이가 색을 흡수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또 빛을 어떻게 잡는지, 빛이 종이에 닿아 움직일 때 생기는 반응은 얼마나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베로니카 블코바 (Veronika Vlková) 와 인형극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로버트 스몰릭 (Robert Smolík)가 함께 고안해낸 이 공연은 전시와 극장 사이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야주인은 동물, 버섯, 그리고 물에서 온 존재들과 함께 삽니다. 그녀는 꽃, 허브 및 향신료로 다양한 색의 염료를 그리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릴때, 야주인은 때론 조용하고, 때론 속삭입니다. 야주인은 여러 물들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 기적적인 만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물은 그림을 그리고 주스를 마셔도 됩니다.

어린이와 어린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다들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한 연극입니다.



작은 손님들

제작:
베로니카 블코바
로버트 스몰릭



로버트 스몰릭 (Robert Smolík)은 주로 인형극의 인형들, 일러스트레이션을 무대 디자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Kuku se vrací' (쿠쿠가 돌아왔다/Kuku is back)와 'Čertův brko' (악마의 깃털펜/Devil's feather pen)의 인형제작에 참여했으며, 영화 세트 디자인 부문에서 Český lev award (체코 사자상) 에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스몰릭은 Jičín에 거주하며, Skrobotnik, Slundra a Šibrová - Skupina ŠŠS라는 인형극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는 현재 포라하 공연 예술 대학교 (Academy of performing art in Prague), 실험연극 및 인형극학과의 조교수입니다.

예슬가 베로니카 블코바 (Veronika Vlková)는 주로 어린이 책의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으며, 예슬가 안 슈라메크 (Jan Šrámek)와 협업하여 작업합니다. 그들의 최신 책에는 수상작 'To je metro čéče' (친구들아, 이거 지하철이야/ That's a Metro Station, Mani) 와 Apolenka z modrotistku (아폴린의 푸른 운반/Apolenka from blueprint)이 있으며, 이들은 2020년 체코 그랜드 디자인 룰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수상했습니다. 베로니카는 브르노 미술 대학교 (Faculty of Fine Arts in Brno)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Premiere dates: Brno, 8. a 9. 10. 2022
Authors: Veronika Vlková, Robert Smolík

Graphic design: Jana Hrádková
Used paintings: Veronika Vlková

Terén – pole performativního umění
Centrum experimentálního divadla, p.o.

teren@ced-brno.cz
jasuteren.cz

ced **TERÉN**

sori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ASSITEJ Korea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CZECH RECOVERY PLAN

MINISTRY OF CULTURE CZECH REPUBLIC

“모든 식물은 독특한 모양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의 가르침과 이해에 따라 적절한 추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eonhardt Thurneysser zum Thurn:
Und Beschreib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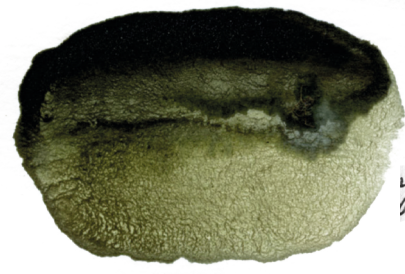


“이제, 투명한 노랑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사프란을 부셔서 린넨 천에 넣으십시오. 사프란이 든 천을 그릇에 넣고, 거품 물을 부어 사프란이 부드러워지도록 한뒤 짜내세요. 색상이 너무 어둡다면 약간의 거품 물을 더 넣어 손가락으로 저어가며 색상이 밝아지는지 확인하세요.

Barbora A. Hřebíčková: Recepty starých mistrů aneb
malířské postupy středověku, Computer Press, 2011

“그림은 누군가가 나의 손을
이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오롯이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Alena Nádvoříková: Art brut v českých zemích,
Arbor vitae, Muzeum umění Olomouc, 2007



이제 보라색 염료 (오스트룸/Ostrum)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색상의 고급스럽고 화려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오스트룸은 조개에서 추출됩니다. 색상이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자연물의 염료보다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오스트룸은 장소의 지리적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로데스 섬 및 다른 남쪽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북서쪽 지역에서는 색상이 보라색을 띠고, 남쪽 지역에선 환한 붉은색이 됩니다.

모아진 조개를 금속 도구로 여기저기 베어내면, 걸쭉한 보라색 과즙이 눈물을 짜낸 것처럼 절구로 흘러내립니다. 그럼 그 보라색 물질을 절구에 쳐서 갈고, 짜내어야 합니다. 이 보라색 염료는 조개에서 추출된다고 해서 오스트룸이라고 불립니다. 고염농도로 인해 꿀을 충분히 섞지 않으면 않으면 빨리 마르게 됩니다.

Barbora A. Hřebíčková: Recepty starých mistrů aneb
malířské postupy středověku, Computer Press, 2011



아이들은 식물이 완전히 자라고 잘 익어 씨를 맺을 때 식물을 따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씨를 맺고 동시에 개화합니다. 태양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날에 식물의 잎, 꽃, 뿌리 및 씨를 함께 따세요. 식물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물로 씻어내지 마세요. 보이지 않게 사라져가는 야생의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 곧 바로 말리세요. 영혼이란 식물들의 초록빛, 맛, 향, 그리고 생명력입니다. “당신이 가진 푸르름을 신중히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남은 식물은 돌 위에 분쇄해야 합니다. 모든 식물들을 큰 욕조에 담고 물을 부어 넣어서,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담가둡니다. (*발네움/Balneum) 그리고 나무 손가락으로 잘 저어야 합니다.”

*발네움 : 식물들이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목욕을 하는 것을 체코에서는 ‘발네움/Balneum’ 이라고 부릅니다.

Manfred M. Junius: Rostlinná alchymie, Trigon, 2018

